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라













Designed by_(주)꽃피는청춘 02.3142.7373

<u>2012</u>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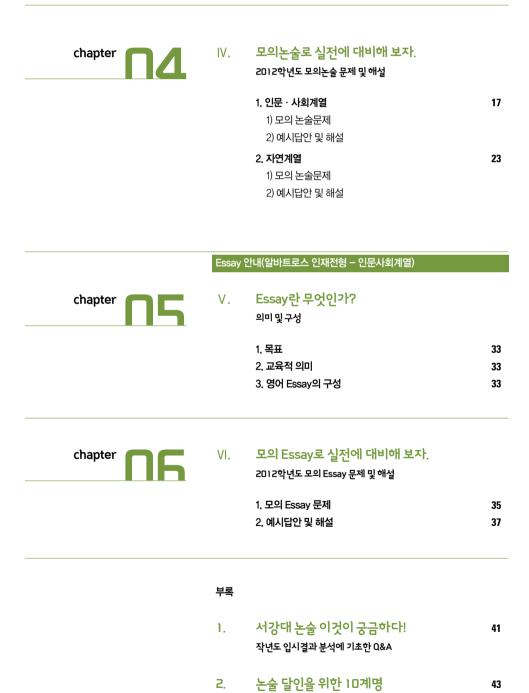
Like





contents

	인사말		06
	논술안니	내(수시2차 일반전형)	
chapter	1.	서강대학교 논술문제 어떻게 나오나요? 통합논술의 기본 성격과 출제 방침	
		 통합논술의 기본 성격과 의미 기본 성격 통합논술의 교육적 의미 	08
		 통합논술의 출제 방침 1) 통합논술 출제의 기본 방향 2) 2012학년도 통합논술 문제 유형 3) 2012학년도 통합논술 출제의 주안점 	09
chapter	П.	논술 준비는 이렇게 하면 된다. 통합논술 준비 방법	
		 인문 · 사회계열 통합논술 준비) 평소 학습 혹은 교과서 가로지르기 2) 읽기 단계 3) 문제해결(토론) 단계 4) 쓰기 단계 	11
		 자연계열 통합논술 준비 수리과학 통합형 수리 계산형, 수리 응용형 자료 분석형, 과제 해결형 	1
chapter	III.	채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논술채점원칙및과락기준	
		1. 채점원칙	10



논술안내(수시2차 일반전형)

1. 서강대학교 논술문제 어떻게 나오나요?

통합논술의 기본 성격과 출제 방침



1. 통합논술의 기본 성격과 의미

1) 기본 성격

- 논술 시험은 대학에서 수준 높은 학문을 연구하고 도야하는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 제도이다. 즉 논술 시험은 어떤 사물이나 사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진지하게 관찰하고 통찰하여, 그 특징을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찾아내 거기서 일반적 원리와 법칙을 유추해내는 통찰력, 판단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인 것이다.
-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학습하고 암기한 지식의 총량보다는,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정보들을 가로지르며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통섭에 기반한 비판적 사고력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논술은 영역별 논제보다는, 지식의 제반 영역을 통섭하는 통합논술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 기본적으로 논증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논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논거를 활용해야 하므로 배타적 교과 설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통합 교과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통합성, 총체성, 연계성, 다양성, 입체성 등을 염두에 두고 역동적으로 성찰하고 토론하면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능력을 창의적으로 함양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012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2) 통합논술의 교육적 의미

- 통합논술은 단지 대학 입시를 위한 평가 제도에서 그치지 않고, 초·중·고등학교 공교육 과정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 통합논술에 필요한 능력들, 이를테면 맥락적 읽기 능력, 분석적이고 통합적인 사고 능력,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합리적인 토론 능력, 논리적 추론 능력, 논리적 구성 능력, 이론과 실천 혹은 논리와 현상 사이의 합리적인 연계 능력, 능동적이고 유창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은 일반적으로 공교육 과정에서 매우 요긴한 기본적 학습 능력에 해당한다.
- 이와 같은 교육적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통합 논술의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설정해 볼 수 있다.

통합논술 교육의 목표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 능력의 함양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 고양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올바른 가치관 정립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 취득 역량 함양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

2. 통합논술의 출제 방침

1) 통합논술 출제의 기본 방향

-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본개념과 기본원리를 토대로 인간, 사회 및 자연의 문제를 논리적·종합적으로 사고하고, 그 사고결과를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한다.
- 단편적인 지식 암기를 지양하고 논리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즉, 단순한 지식의 나열보다는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도록 할 것이다.
- 대학에서의 수준높은 수학능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즉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 논리적 분석 능력과 적용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
- 인문·사회계와 자연계로 크게 나누어 논술 시험을 실시한다. 자연계는 수리 창의력 측정을 강조한다.
-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출제진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등학교까지의 공교육 과정을 최대한 존 중하는 가운데, 최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2) 2012학년도 통합논술 문제 유형

• 2012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출제문항	3문항	2문항
시험시간	인문사회 : 2시간30분 자연 : 2시간	인문사회 : 2시간 자연 : 2시간
출제분야	인문사회 : 국문논술 자연 : 자연과학/창의력 + 국문논술	인문사회 : 국문논술 자연 : 자연과학/창의력

• 계열별 출제 관련분야

계열	학부	관련분야	비고
인문 · 사회	문학부, 사회과학부, 커뮤니케이션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인문/사회과학 중심에 자연과학적 성격도 가미한 제시문과 논제	
자연	자연과학부, 공학부	자연과학/창의력 관련	

• 반영비율

계열	문항 1	문항 2
인문 · 사회	60%	40%
자연	50%	50%

• 문항별 답안분량(띄어쓰기 포함) 및 고사시간

계열	문항 1	문항 2	고사시간
인문 · 사회	1,300자 ~ 1,500자	800자 ~ 1,000자	120분(2시간)
자연	제 한 없 음	제 한 없 음	120분(2시간)

3) 2012학년도 통합논술 출제의 주안점

- 논제 및 제시문의 통합적 구성: 통합교과적 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시문 역시 인문, 사회, 자연과학 및 경제 경영 관련 문헌들을 망라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제시문 구성 시 문장으로 이루어진 제시문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도표나 통계 등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 통합적 수학능력 측정: 특정 과목이나 특정 단원의 단편적 지식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까지 여러 교과 목에서 갈고닦은 수학능력을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자연계의 경우 수리 창의력 강조: 자연계의 경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익힌 수학 및 과학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리 창의력 문제를 출제한다.

2012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10

Ⅲ. 논술 준비는 이렇게 하면 된다.

통합논술 준비 방법



1. 인문 · 사회계열 통합논술 준비

1) 평소 학습 혹은 교과서 가로지르기

- 평소에 다양한 교과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주체적으로 읽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고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즉 새로운 단원을 읽고 핵심 개념이나 주제를 파악, 전체의 논리적 연관성을 이해,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 토론 과정을 통해 대안들을 심화하고, 나름대로 정리하여 글로 써 보거나 말로 발표하는 활동 모두가 논술 준비의 일환이요, 나아가 자기 발전과 세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는 활동이므로 이를 분명히 인식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와 같은 공통의 학습 활동에 보태어, 개인적으로 평소에 꾸준히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읽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기에 자신의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보태어 글로 자기표현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무엇보다 교과서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각 교과서의 기본 개념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개념들의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논술 준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통합 논술은 실제로 이런 기본 개념과 그 맥락의 이해 와 새로운 적용과 관련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교과서에는 많은 문제의식들이 담겨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들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실마리로 하여 현실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확대 심화하는 평소의 학습 과정이야말로 논술 준비뿐 아니라 내신 및 수능 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교과서의 기본 개념들을 숙지하고 그 맥락을 고려하면서 현실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들을 궁리한다는 것은 곧 비판적 사고와 통한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단지 기존에 찾아진 답을 수동적으로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롭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궁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존의 방안을 비판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탐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기존의 견해와 새로운 견해, 나의 의견과 남의 의견 사이에 폭넓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할 수 있을 것이다.

2) 읽기 단계

- 무엇보다 글(논제와 제시문)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 소재와 뒷받침 소재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소재를 대하는 필자의 태도 혹은 그것과 관련한 필자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제를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견해까지 사려 깊게 성찰하면서 읽는 연습이 요구된다
- 제시문을 읽을 때 각 단락의 연관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단락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 단락, 대안이나 전망을 제시하는 단락이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어떤 사태나 현상의 원인을 규명한 단락, 그 결과를 도출한 단락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본질을 나타낸 단락, 현상을 드러낸 단락, 사실을 적은 단락, 주장을 드러낸 단락 등 각 제시문의 단락은 여러 양상을 보인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단락과 단락 사이,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의 연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논술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제자들이 그 연관관계를 십분 고려하면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은 곧 정확한 출제의도 파악과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시문에 들어 있는 사실들을 면밀하게 읽어냈다면,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사실들 혹은 주장들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시대적, 정치적, 사회적, 과학적 맥락 등 크고 작은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하면서 제시문에 들어 있는 사실이나 주장을 비교, 대조하는 가운데 구조적이면서도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렇게 제시문의 소재와 주제, 필자의 처지와 태도, 구성과 맥락 등을 다채롭게 고려하면서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글을 읽는다면, 그 어떤 글이라도 이해하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논술의 제시문은 전문적인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며, 해독되지 않는 난해한 글들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수능 시험의 언어 영역이나 논술 시험의 제시문이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라면, 그 난해성을 원망하기 이전에 우선 자신의 글 읽기 습관을 반성해 보고 얼마나 그 기본에 충실하게 읽는가를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비판적 읽기를 수행해야 한다. 단지 수동적으로 글에 들어 있는 무엇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글 읽기를 통해 얻은 새로운 앎을 내 안에 들어 있는 여러 지혜와 상상력의 보물창고와 결합하여 새로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지혜와 정보를 창출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무릇 읽기의 핵심임을 명심하자

3) 문제해결(토론) 단계

- 읽은 것을 바탕으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토론이나 궁리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토론이나 대화적 논쟁은 비판적, 합리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데 요긴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토론을 할 때는 우선 논점(쟁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토론의 대상인 논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 진단한 다음에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해야 한다. 설득(논증) 과정의 설득력(객관적 타당성)을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사실·소견 논거)가 타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이나 관련된 논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평소에 구체적인 사례를 일반화하거나, 일반론을 구체화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을 때 분명하고 핵심적으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과정은 남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근거가 타당하고 논리적인 반론을 제기해야 하며, 논점이 분명한 반론을 설득력 있게 제기해야 한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업 시간 중에, 혹은 친구들끼리 구체적으로 토론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논술 연습을 위해서 아쉬운 대로 내 안에서 복수의 '나들'의 토론을 유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안에 복수의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나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각각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대화를 내적으로 수행한다면 심화된 논술 능력을 함양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된다. 예컨대 '사형제도 폐지'라는 논점에 대해 첫 번째 나는 찬성, 두 번째 나는 반대 입장을 취한 다음 각 입장에서 진지하게 토론을 전개해 보는 방식이다. 등하교 시간을 이용하여 매일 논점 하나씩 취하여 그와 같은 내적 토론을 수행한다면 논술 시험에서는 물론 이후의 전문적인 자기 일에서도 큰 성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요컨 대 주체적이면서도 대화적인 궁리가 중요한 것이다

4) 쓰기 단계

- 정확히 읽고, 창의적인 대안을 궁리한 다음에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구술시험이라면 말로, 논술 시험이라면 글로 표현하여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한다. 논술문 작성을 위해 먼저 효율적인 개요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개요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분량까지 잘 계산된 것이면 더 좋을 것이다.
- 실제 글쓰기를 하기 전에 분량과 내용 조직을 고려하면서 우선 눈으로 한 번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약 15초 정도 원고지를 따라 눈으로 쓰다보면 논리적 전개나 분량의 조절 등 여러 면에서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 본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결론을 맺어야 한다. 상대적으로 긴 논술문(1,000자 이상)의 경우라면 시작과 끝에서 자신의 주장을 아울러 밝히는 양괄식 구성이 유리할 수 있다. 짧은 논술문의 경우는 좀 탄력적일 수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글(단락, 문장)의 구성력(통일성 · 일관성 · 완결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노파심에서 덧붙이는 소리지만 논술은 글재주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다. 수사보다는 알맹이이고, 알맹이의 논리적 전개가 중요하다. 또한, 분량을 꼭 지켜야 한다. 분량을 어겼을 경우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제 시험을 위해서 시간 배분을 잘 하는 연습도 필요하다.

2D12 논숲&에세이 가이드북 SOGANG UNIVERSITY

2. 자연계열 통합논술 준비

1) 수리과학 통합형

- 수리과학 통합형 문제는 수리과학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거나, 실생활 속에 자연과학적 현상과 원리가 배경인 제시문으로 부터 주어진 질문들을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수학적 논리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임
- 수리과학 통합형 문제는 제시문 속에 항상 문제를 풀어내는데 필요한 단서가 들어있으므로, 질문의 핵심이 되는 대상을 제시문 속에서 찾는 것이 좋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임
- 수리과학 통합형 논술의 논제는 중,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소재들이 바탕이 되는데, 물리나 화학 등의 과학 교과 과정 안에 스며있는 수리 논리적 개념들도 수리과학 통합형 논술의 논제가 됨.
- 수리과학 통합형 논술은 수학 및 과학 교과과정의 이해에 기반을 둔 기초지식 및 창의력을 바탕으로 수험생이 어떠한 사고 과정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였고 또한 그것이 얼마나 명료한 논리를 갖추어 객관적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 어떤 정해진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답안이 가능한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수혐생 나름의 답안이 객관적 일관성과 논리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훌륭한 답이 된다. 제시문 속에는 항상 문제를 풀어내는데 필요한 단서가 들어있으므로, 질문의 핵심이 되는 대상을 제시문 속에서 찾아서 이에 대한 수리 과학적 원리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을 이끌어내야 함.
- 수리과학 통합형 논술은 어느 정도 언어 영역의 논리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속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표현, 올바른 문장 전개 등 글쓰기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함.

2) 수리 계산형, 수리 응용형

- 수리 계산형, 수리 응용형 논술은 제시문에서 주어진 질문들을 수리적인 계산과 논리를 통하여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는 유형의 문제로서 수리과학 통합형 문제와 더불어 자연계 논술에서 가장 빈번히 출제되는 유형임.
- 수리 계산형, 수리 응용형 논술은 제시문의 내용과 질문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수리적 계산으로 옮기고 답을 올바로 구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논술유형임
- 수리 계산형, 수리 응용형 논술은 수험생에게 반드시 수학적인 언어와 논리로서 대답하기를 요구하므로 구체적인 답변 없이 어설픈 논술로 둘러대며 넘어가서는 안 됨.
- 수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며, 때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수학 교과과정에서 다루는 대상의 원리나 구체적인 품이과정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음
- 답안이 완성되면 수리 계산과정에서 오류가 없고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바를 빠짐없이 엄밀하게 답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2012 논숰&에세이 가이드북

3) 자료 분석형, 과제 해결형

- 자료 분석형 문제는 자료가 되는 표와 이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진 문제로 나타나는데, 자료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동반한 수리적 사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제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결론 내리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유형임
-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엉뚱한 내용의 논술문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어진 자료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단계별로 주제 분석을 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함
- 문제에서 주어진 게임의 규칙, 통계 자료 또는 조사 결과를 해석하고 그에 따라 미래의 행동을 어떻게 결정할지 보여줘야 하는 과제 해결형 문제들이 주로 이 유형에 속함
- 자료로부터 너무 비약적인 결론을 내리거나 모호한 문장으로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답안이 신뢰를 얻는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통한 논리적인 서술이 반드시 필요함
- 과제 해결형 문제의 경우 어떻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과정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 논술의 목적임. 주어진 문제에 대한 어떤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답안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임. 즉 수험생들의 정형화된 풀이 방법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자의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생각이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가를 평가하고자 함

Ⅲ. 채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논술 채점원칙 및 과락기준



16

1. 채점원칙

다음과 같은 논술 평가 척도를 적용하여 채점한다.

- 제시문 읽기를 통한 문제 발견 및 해석 능력
- 통합적 문제와 관련한 의견의 조정 및 추론 능력
-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
-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구성 및 기술 능력

2. 과락기준

-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않은 백지 답안 또는 답안분량이 현저히 미달되는 답안
-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자수를 준수하도록 합시다!
- 문제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답안
- ⇒글자수를 채워도 내용이 문제와 상관없다면 인정 안돼요!
- 문항 〈1번〉과 〈2번〉의 답안을 바꿔 작성한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
- ⇒아무리 긴장되더라도 논술답안을 바꿔쓰면 안되지요!
- 모든 문항을 한 종류의 동일한 필기구로 작성하지 않은 답안
- ⇒ 연필, 볼펜, 펜 등 검정색 계통의 필기구는 모두 허용되지만, 한가지 필기구로 1.2번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문제와 관계없는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식이 있는 경우 또는 수험생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식이 들어있는 경우
- ⇒답안이외의 내용은 일체 허용되지 않아요. 특히 이모티콘 절대 쓰지맙시다!
 - 예)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꼭 서강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 ~하다. -_-;;
 - 끝났다! ㅋㅋㅋ

2012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IV. 모의논술로 실전에 대비해 보자.

2012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및 해설

chapter

1. 인문 · 사회계열

1) 모의 논술문제

[문항 1]

아래 제시문들의 공통 논제를 밝히고 그 차이점에 대해 논술하시오.(1300-1500자, 60% 배점)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장소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삶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간 인식 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 인식 체계를 국토관이라고 하는데, 시대와 장소에 따라 환경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국토관이 존재한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천·지·인의 세 요소를 우주의 근본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땅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만물을 형성하는 기반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지만 산지가 많고 평야가 넓지 않아 농경에 불리하였기 때문에 땅을 중심하는 사고가 국토관의 바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발전한 것이 풍수지리 사상이다.

풍수지리 사상은 산의 모양과 기복, 바람과 물의 흐름 등으로 땅의 성격을 파악하여 좋은 터전을 찾는 사고 체계이다. 이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조상들의 생활 태도와 토착 사상인 대지모(大地母) 사상과 중국의 음양오행설이 결합되어 발전한 것이다.

풍수지리 사상은 서민들이 자신들의 삶터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려 및 조선 시대에는 도읍지 선정, 묘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쳐 오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고등학교 사회』

사람의 감각이나 지각의 대상이 되는 공간은, 베르그송이 시간을 시계의 시간과 인간에 의해 살려진 시간으로 나누었듯이, 수학적 공간과 체험되는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수학적 공간은 동서남북처럼 인간과 관계없이 객관적, 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타자적인 것이고, 인간에 의해 체험되는 공간은 전후좌우처럼 인체 전체로 파악되는 구체적, 주관적인 것으로 신체적, 자의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파악하는 공간은 전후, 상하, 좌우로 분절되고 구별되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구체적 경험공간은 不 등질성의 특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분절은 정서성을 갖는 '가치부여'에 의한 것이며, 완전히 이질적 공간으로 분절되어 단순한 방향성의 분절을 넘어 이방성(異邦性)을 생기게 한다.

B

이 이방적(異邦的) 분절구조는 전후, 좌우, 상하라는 단순한 위치관계의 분절이나 판별을 넘는데, 이것은 바로 정서적, 정신적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 주체 존재에 관계된다. 즉 전후라는 것은 무엇의 '앞'이며 '뒤'라는 것, 즉 인간의 주체적 존재의식을 전제로 하여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식하고 사유하고 행위하는 주체적 존재인 인간 '나'(ego)'라는 자기의식에 있어서의 앞과 뒤로서, 단순한 공간적 위치관계의 분절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 '나'를 위치의 문맥으로 치환하면 그것은 나의 존재를 중심으로 한 '여기'이다.

즉 인체는 자연 속에서 동적 균형을 유지하며 자기조직화하는데, 이 자기조직화의 방법의 기본적인 것으로서 중심화를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심화에 의해서 모든 지각, 모든 행동은 지금, 여기, 나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여기, 나에 달라붙은 유착적(癒着的)인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중심화에 의해서 여기라는 비균질공간이 탄생하는 것이다.

- 정영길, 『한국 전통건축의 인간중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통적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거주지역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미지의 불확실한 공간 사이에 대립관계를 상정한다는 점이다. 전자는 세계(보다 정확하는 우리의 세계)이며, 코스모스이다. 그것의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은 더이상 '코스모스'일 수 없으며, 차라리 일종의 '다른 세계', 낯설고 혼두에 찬 공간, 유령과 마귀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다

C

공간에 있어서의 이 같은 분열은 사람이 살고 있는 조직된 지역—따라서 '코스모스화'된 지역—과 그것의 변경 바깥에 있는 미지의 공간 사이의 대립에 연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쪽에는 코스모스가, 다른 쪽에는 카오스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이 코스모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곳이 어떤 방식으로든 신들의 작품이나 신들의 세계와 교섭을 가짐으로써 첫 번째로 신성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미지의, 낯선, 점거되지 않은 지역은 아직도 카오스의 유동적이고 애벌레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것을 점거하고, 또 무엇보다도 거기에 정주함으로써 인간은 우주 창조의 제의적인 반복을 통해 상징적으로 그것을 하나의 코스모스로 전이시킨다.

- 엘리아데, 『성과 속』

18

SOGANG UNIVERSITY

[문항 2]

아래 제시문들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것들의 특성과 한계를 [문항 1]의 제시문들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800-1000자, 40% 배점)

물리적으로 볼 때 공항은 빠져나갈 데 없는 완전한 환경을 이룬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에게 공항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들을 둘러싸는 분위기 또는 대기와 같아 도대체 공항을 밖으로부터 보는 경우가 드물게 마련인데, 그것은 안으로부터 경험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출발하는 공항 또는 여행객이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착하는 공항의 출입구를 잠시간 바라볼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도 오늘날의 거대 공항, 특히 시카고나 동경이나 프랑크푸르트의 공항의 전체를 하나의 원근법 속에, 즉 한 사람의 적절한 시각으로부터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체의 모양을 파악하는 것은 공중촬영의 각도로부터 또는 지도로만 가능하다. 이것은 공항이 아니라도 오늘날의 거대한 건물에서 흔히 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지각생활 또 사회생활에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하여야 한다.

D

- 김우창, 『국제공항: 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에 대한 명상』

근대의 비종교적 인간은 새로운 실존적 상황을 상정한다. 그는 그 자신을 오로지 역사의 주체 및 역군으로만 간주하며, 초월을 향한 모든 호소를 거절한다. 달리 말하면, 그는 다양한 역사적 상황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인간 조건의 바깥에 있는 인류를 위한 어떤 모델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간은 그 자신을 만든다. 그리고 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 세계를 탈신성화시키는 정도에 비례해서만 그 자신을 완전하게 만든다. 거룩한 것은 그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이다. 그는 오로지 그가 전적으로 비신화화될 때에만 그 자신이 될 것이다. 그는 최후의 신을 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Е

– 출전 미확인

2) 예시답안 및 해설

[문항 1]

[예시답안]

주어진 세 편의 글은 모두 인간의 자기이해가 주변의 공간인식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이성적 인 동물인 한, 자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자기이해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와 분리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장소와 공간은 그것이 사람살이의 근본적인 외부환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 주어진 세 편의 제시문은 인간이 그런 근본적인 삶의 환경으로서의 공간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인식이 차원을 달리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제시문 [A]는 동양에서의 공간인식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적인 공간이 해의 근간인 풍수지리를 설명하고 있다. 천지인 세 요소를 우주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동양적 가치관의 연장선상에서, 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적응과 조정을 중시하는 풍수지리적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 서도 환경에의 적응과 조정까지를 고려하는 우리의 풍수지리사상은 결국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공간인식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는 달리 제시문 [B]는 공간을 주관적 공간과 객관적 공간으로 나누어보고 있다. 이 글은 인간적 공간은 의식하는 주체인 〈나〉의 자기의식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간 이해는 단순한 수학적 방향성을 넘어서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조직화의 결과이며, 그로부터 전후좌우라고 하는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비균질적인 공간이 탄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 [B]의 이런 입장은 데카르트적인 〈주체〉와 베르그송의 시간관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제시문 [A]와 대별되는 서구적 공간인식과 그에 따른 인간이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제시문 [C]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간이 어떻게 공간인식을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이 글은 인간의 공간이해는 인간의 삶이 시작된 순간부터 비롯된 인간의 근본적인 자기이해의 방법론이라고 말한다. 원시 상태의 인간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돈된 질서의 공간과 자신이 알지 못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미지의 공간으로 이분 법적으로 구별하였는데, 이런 공간인식은 또한 역으로 인간에게 자신들의 거주공간에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했다고 말한다. 이 논의는 또한 인간이 공간인식의 차원에서도 종교적이라고 할 만한 차원을 마련함으로써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시문 [A]는 한국으로 대표되는 특정지역 사람들의 공간과 자기이해의 관계를 말하고 있으며, 제시문 [B]와 [C]는 다분히 서구적 관점에서 〈지금-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간중심적인 공간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비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공간이해가 환경에 대한 적응과 인간 삶의 조정에 중점을 둔다면, 뒤의 두 편의 제시문은 근대적인 인간중심의 공간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2012 논숲&에세이 가이드북

20

[해 설]

위 문제는 인간의 공간이해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는 세 편의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들이 공통으로 거론하고 있는 주 제를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와 각각의 제시문들 사이의 차이를 변별해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제시문 [A]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뽑은 지문으로, 한국사람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풍수지리설'의 의미와 그 맥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시문 [B]는 인간의 공간을 주관적 공간과 객관적 공간으로 나누어, 객관적 공간이 수학적이고 도형적인 공간임에 반해 주관적인 공간은 〈나〉를 중심으로 〈지금—여기〉에서 경험되는 비균질적이고 가치가 부여된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문 [C]는 신화학자 엘리아데의 글에서 뽑은 것으로, 인간의 성스러움에 대한 인식이 공간과 결부되어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이 문항에 대한 논술문은 인간의 자기인식과 공간인식의 불가피성 내지는 필연적인 관계에 대한 인식 위에서 각각의 글들이 보이는 편차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면 무난하다. 위 예시 답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양적 공간 관과 서양적 공간관의 대비라든지, 조정과 적응을 중심하는 공간관과 〈지금-여기〉를 중시하는 인간중심적이고 근대적인 공간관의 성격을 대비시켜 서술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부분이 선명하게 지적된다면 훨씬 안정된 논술문이 될 것이다

[문항 2]

[예시답안]

[E]가 묘사하는 근대적 인간의 자기이해의 핵심은 "자유"다. 새로운 인간은 신이든 자연이든 상관없이, 자유를 제어하고 억제하는 모든 초월적 존재를 부정하며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역사의 주체이자 역군이 되고자 한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것이 최후의 신을 살해하거나 주위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될지언정,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근대인의 궁극적인 목표다. 인간의 새로운 자기이해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쌍을 이룬다. [D]가 표현하듯이, 근대적 공간의 구성 원리는 기능적 목적을 위한 공간 창출이다. 외부와의 완전한 고립과 단절, 오로지 특정한 기능적 목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기완결성, 이는 그 어떤 외부적인 사항들에 종속되지 않는 인간의 공간, 그들의 집합인 사회의 특정한 쓸모만을 위한 공간, 바로 이것이 새로운 공간의 유일무이한 목적이다.

근대적인 관점은 전통적인 관점들과 대립한다. 근대는 공간과 환경의 조화, 아니면 환경에 맞춘 적응([A])을 고려치 않는다. 그것은 '인간 조건의 바깥에 있는 모델'([E])이기에 고려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체의 모양을 파악"해야 비로소 가능하지만, 근대적 공간은 내부에서만 경험되기에 그럴 가능성도 적다([D]). 이는 "지금, 여기, 나" ([B])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공간인식의 결과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장애 물"([E])이 될 수 있다. 신들의 계획이나 교섭이 전통적 공간의 경계라면([C]), 근대적 인간은 그 경계를 철저히 '파괴하여 진정으로'자유롭고자 한다([E]).

이렇게 자유로운 근대인은 자기중심적으로 공간을 조직화([B])하여 "낯설고 혼돈에 찬 공간"을 "코스모스"로 만들며 ([C]), 그것의 결과는 자신의 생존 조건인 자연의 파괴이며, 그런 만큼 애초의 목적인 인간 자유의 실현과도 멀어진다. 이용객들이 "도착하는 공항의 출입구를 잠시간 바라볼 기회"([D])도 적어질 만큼, 신과 자연에게서 자유로워진 근대인들은 또 다른 초월적 존재, 즉 인간사회의 기능적 목적에 자신의 자유를 양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 설]

위 문제는 근대적 공간의 구체적인 특성과 근대적 인간의 자기이해를 서술하는 두 편의 제시문을 주고, [문항 1]의 제시문에서 추출한 관점들에 입각하여 그 특성과 한계를 서술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다.

제시문 [D]는 공항의 모습을 통해 근대적 공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공항은 이동이라는 기능적 목적을 위해 특화된 공간이다. 제시문 [E]는 근대적 인간의 자기이해가 그 어떤 초월적 존재도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근대인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외적인 장벽들을 수용치 않는다. 두 제시문은 근대적 인간과 근대적 공간이 자연이나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로부터 고립, 단절,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완결적임을 주장한다.

근대적 인간과 공간이해는 제시문 [A], [B], [C]의 관점들과 대립하거나 조화를 이룬다. 다양한 관점들을 각 제시문에 투영하면서 근대적 공간과 자기이해의 특성과 한계를 설득력 있게 묘사한다면 충실한 논술문이 될 것이다.

위 예시 답안은 각 제시문에서 추출 가능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A]는 동양적 공간이해가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 그리고 적응을 목적으로 함을 지적한다. 이와 달리 [B]는 〈지금-여기-나〉를 독점적으로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 공간이해를, [C]는 〈성-속〉의 이분법이 공간 인식의 경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D]와 [E]의 한계로 지적될수 있는 바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역사의 주체로 자신을 인식하는 근대인들이 생존의 기본 조건인 자연을 파괴하는 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기능적 공간의 자기완결성에서 나타나는 바처럼, 그것이 비록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했지만, 결국 사회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는(이동이라는 기능적 목적에 종속되어 나타나는 소외)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여기서 관건은 '맞는 관점을 찾는 것'이 아니다 각 관점이 [D]와 [E]의 특성과 한계를 설득력 있게 드러내는 것이다.

22

2. 자연계열

1) 모의 논술문제

[문항 1]

제시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글자 수 제한 없음, 50% 배점)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그 점에서의 값과는 관계가 없고, 그 점 주위에서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함수 y=g(x) 에 대하여 α 와 a가 실수인 경우 $\lim_{x\to a}g(x)=\alpha$ 라 함은 x가 점 a 에 가까이 갈 때 함수 g의 값이 α 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며 g의 점 a에서의 값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α 가 실수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lim_{x\to 0+0}\frac{1}{x}=\infty$ 을 생각하자. 이 경우 0 보다 큰 x가 0 에 가까이 갈 때 ∞ 에 가까이 간다고 할 수는 없다. ∞ 는 수가 아닌 기호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 는 모든 실수보다 큰 것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그러면 $\lim_{x\to 0+0}\frac{1}{x}=\infty$ 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의 의 미는 0 보다 큰 x가 0 에 아주 가까이 갈 때 함수 값이 아주 커진다는 것이며, 이를 수학적으로 해석하면 '임의의 양의 실수 M 에 대하여 0의 근방이 존재하여 x가 0 보다 크며 그 근방에 있을 때 함수의 값이 M 보다 크다' 라고 해석한다.

위의 경우는 x가 특정한 실수에 가까이 갈 때 함수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x가 이주 커질 때 또는 아주 작아질 때 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함수 y=h(x)에 대하여 이는 수학적으로 $\lim_{x\to\infty}h(x)$, $\lim_{x\to-\infty}h(x)$ 로 쓴다. 그러면 β 가 실수인 경우 $\lim_{x\to\infty}h(x)=\beta$ 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자. 앞의 경우는 x가 특정한 값 a에 가까이 갈 때의 변화인 것처럼 'x가 ∞ 에 가까일 갈 때 h(x)가 β 에 가까이 간다' 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 는 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lim_{x\to\infty}h(x)=\beta$ 는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β 의 근방을 임의로 택할 때 실수 M이 존재하여 x가 M보다 크면 h(x)가 앞에서 택한 β 의 근방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다음은 β 가 실수가 아닌 경우는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말하면 $\lim_{x\to\infty}h(x)=\infty$ 를 생각하자. 이는 x가 아주 크면 h(x)의 값이 아주 크다는 의미이다. 이를 수학적으로 쓰면 '임의의 양의 실수 M에 대하여 실수 N이 존재하여 x가 N보다 크면 h(x)가 M보다 크다'는 것이다. 여기서 M과 N을 아주 큰 수라 생각하면 앞의 생각과 일치가 된다.

미분가능한 함수의 대표적인 예로 다항함수를 생각하자. 다항함수에서 변수가 이주 커질 때 또는 아주 작아질 때 다항함수가 어떻게 변하는 지는 다항함수의 최고차항에 의하여 결정된다. 변수가 이주 작아질 때 최고차항의 지수가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 다르며, 또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최고차항의 지수가 홀수이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이면 변수가 아주 작아질 때 함수의 값은 아주 커지며, 최고차항의 지수가 홀수이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이면 변수가 아주 작아질 때 함수의 값은 아주 작아진다.

함수의 최솟값을 찾는 문제는 최적화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피가 주어진 육각형 모양의 상자를 만들 때 가로와 세로, 높이를 어떻게 하면 최소 겉넓이를 갖는 상자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함수의 최솟값을 찾는 문제이다. 최솟값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미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미분가능한 함수가 구간 [a,b]의 내부의 점에서 최솟값을 가지는 경우와 경계점에서 최솟값을 가지는 경우는 매우 다르다. 구간 내의 점 c에서 함수가 최솟값을 갖는 경우 a < c < b이면 함수의 미분값은 0이 되어야 하며, a에서 최솟값을 가지면 미분값은 0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 또한 b에서 최솟값을 가지면

미분값은 0 보다 같거나 작아야 한다. 함수의 최솟값을 찾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최솟값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 연속함수의 경우 구간에서의 최솟값의 존재성 문제는 구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함수 $y=-\frac{1}{x}$ 은 구간 (0,1]에서 최솟값을 갖지 않는다. 함수 y=g(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이 함수의 구간 [a,b]에서의 최솟값의 존재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 다음은 유한 구간이 아닌 경우를 생각하자. 변수가 아주 작아지거나 아주 커지는 경우에 최솟값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함수 y=h(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 하고, $\lim_{x\to\infty}h(x)=\infty$, $\lim_{x\to\infty}h(x)=\infty$ 인 경우, 실수 α 와 M>0, 집합 $(-\infty,-M]\bigcup[M,\infty)$ 내의 점 α 가 존재하여 $x\geq M$ 또는 $x\leq -M$ 이면 $h(x)\geq \alpha=h(a)$ 이다. 다시말하면 함수 y=h(x)는 집합 $(-\infty,-M]\bigcup[M,\infty)$ 에서 최솟값을 가진다.

다항함수 $f(x) = a_n x^n + a_{n-1} x^{n-1} + \dots + a_1 x + a_0$ 라 하자. R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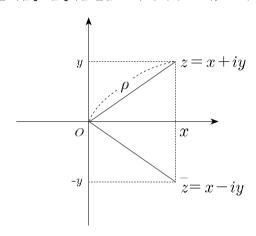
- 1. $a_n>0$ 이고 n이 짝수이면 $\lim_{x\to\infty}f(x)=\infty$, $\lim_{x\to\infty}f(x)=\infty$ 임을 설명하여라.
- 2.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0 이면 $a_n>0$ 이고 n이 짝수임을 설명하여라.
- $a_n > 0$ 이고 n 이 짝수이면 $f \in \mathbb{R}$ 에서 최솟값 $f(x_0)$ 을 가짐을 설명하여라.
- 4. $g(x)=f(x)+f'(x)+f''(x)+\cdots+f^{(n)}(x)$ 라 하자. $a_n>0$ 이고 n이 짝수이면 g는 최솟값을 가짐을 설명하여라.
- 5. q'를 f와 g를 이용하여 나타내어라.
- 6.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 > 0 이라 하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g(x) > 0 임을 설명하여라.

2012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24

[문항 2]

제시문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라.(글자 수 제한 없음, 50% 배점)

16세기에 들어와서 수학자들은 2차 또는 3차 다항식의 모든 근을 찾기 위해 음수의 제곱근의 표현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허수(imaginar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실수와 다른 허구의 숫자로 생각했다. 거의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베셀(Wessel), 아르강(Argand) 그리고 가우스(Gauss)에 의해 기하적 해석을 통하여 복소수를 명백히 하게되었다. 즉, 복소수 z=x+iy를 다음 【그림1】처럼 원점으로부터 각각 x —축, y —축의 좌표 (x,y)로 평면에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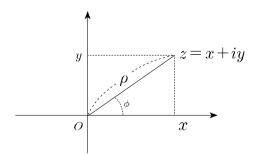
【그림1】

그리고 z=x+iy 에 대하여 x축에 대칭인 복소수를 $\overline{z}=x-iy$ 로 정의하고 z의 공액(conjugate)이라고 불러왔다. 두 복소수, $z_1=x_1+iy_1$ 과 $z_2=x_2+iy_2$ 에 대하여 덧셈과 곱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begin{split} z_1 + z_2 &= (x_1 + x_2) + i \left(y_1 + y_2 \right), \\ z_1 z_2 &= (x_1 x_2 - y_1 y_2) + i \left(x_2 y_1 + x_1 y_2 \right). \end{split}$$

복소수 z=x+iy 와 원점 사이의 거리를 ρ 라고 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rho^2=x^2+y^2=zz^2$ 이다. 이 경우, z의 크기 |z|는 ρ 라고 말한다. 예컨대, 단위원은 원점에서 반지름이 1인 점들의 집합이므로 $\rho=1$ 가 될 것이다.

원점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양의 x—축과 원점 o와 z사이의 선분 \overline{o}_z 사이의 반시계 방향의 각 ϕ 에 대하여 z의 각 (angle)이라고 정의한다. 이때, 다음 【그림2】처럼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x = \rho\cos\phi$, $y = \rho\sin\phi$ 이므로, 복소수 $z = x + iy = \rho(\cos\phi + i\sin\phi)$ 로 표현이 된다.



【그림2】

- 1. 곱의 정의로부터 $i^2 = -1$ 을 보이시오.
- 2. 두 복소수 z_1 , z_2 에 대하여 $|z_1 + z_2| = |z_1| + |z_2|$ 이 성립하기위한 두 복소수 z_1 , z_2 의 관계를 구하시오.
- 3. 모든 정수 n과 z=x+iy 에 대하여,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여, $z^n=\rho^n(\cos n\phi+i\sin n\phi)$ 을 유도하시오.
- 4. 세 복소수 z_1, z_2, z_3 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Delta z_1 z_2 z_3$ 을 이용하여, 복소수 $(z_1-z_2)/(z_1-z_3)$ 의 각을 해석하시오.
- 5. 네 개의 복소수 z_1 , z_2 , z_3 , z_4 에 대하여 복소수 $(z_3-z_1)/(z_3-z_2)$ 과 $(z_4-z_1)/(z_4-z_2)$ 의 각이 같을 때, 네 복소수들은 어떠한 위치 관계를 갖는가? 그리고 그 역의 성립여부를 입증하시오.

2012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2) 예시답안 및 해설

[문항 1]

[예시답안]

문제1.

$$a_n > 0 \text{ 이므로 } \lim_{x \to \infty} f(x) = \lim_{x \to \infty} a_n x^n (1 + \frac{a_{n-1}}{a_n} \frac{1}{x} + \frac{a_{n-2}}{a_n} \frac{1}{x^2} + \dots + \frac{a_1}{a_n} \frac{1}{x^{n-1}} + \frac{a_0}{x^n}) = \infty \text{ ord},$$

$$n \text{ 이 짝수이므로 } \lim_{x \to -\infty} f(x) = \lim_{x \to -\infty} a_n x^n (1 + \frac{a_{n-1}}{a_n} \frac{1}{x} + \frac{a_{n-2}}{a_n} \frac{1}{x^2} + \dots + \frac{a_1}{a_n} \frac{1}{x^{n-1}} + \frac{a_0}{x^n}) = \infty$$

문제2.

 $a_n<0$ 이면 $\lim_{x\to\infty}f(x)=-\infty$ 이며, 따라서 $a_n>0$ 이다. n이 홀수이면 $\lim_{x\to-\infty}f(x)=-\infty$ 이다. 따라서 $a_n>0$ 이고 n은 짝수이다.

문제3.

지문에서 실수 α 와 M>0, 집합 $(-\infty,-M]$ $\bigcup [M,\infty)$ 내의 점 a가 존재하여 $x\geq M$ 또는 $x\leq -M$ 이면 $f(x)\geq \alpha=f(a)$ 이다. f는 [-M,M]에서 연속이므로 f는 최솟값 $f(x_1)$ 를 갖는다. 즉 f(a)는 $(-\infty,-M]$ $\bigcup [M,\infty)$ 에서의 최솟값이며 $f(x_1)$ 는 집합 [-M,M]에서 최솟값이다. $f(a)\leq f(x_1)$ 이면 $x_0=a$, $f(a)\geq f(x_1)$ 이면 $x_0=x_1$ 이라 하면 f는 R에서 최솟값 $f(x_0)$ 를 갖는다.

문제4.

q(x) 의 최고차항은 $a_n x^n$ 이다. $a_n > 0$ 이고 n 이 짝수이므로 문제 3에 의하여 q는 최솟값을 갖는다.

문제5.

$$g'(x)=f'(x)+f''(x)+\cdots+f^{(n)}(x)+f^{(n+1)}(x)$$
이고 f 는 n 차 다항식이므로 $f^{(n+1)}(x)=0$. 따라서
$$g'(x)=f'(x)+f''(x)+\cdots+f^{(n)}(x)=g(x)-f(x)$$
이다.

<u>문제6.</u>

g가 b에서 최솟값을 갖는다고 하고 $g(b) \le 0$ 이라 하자. b는 구간 [b-1,b+1]내의 점이며 g는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g'(b) = 0이다. 그러나 f(b) > 0이고 $g(b) \le 0$ 이므로 g'(b) = g(b) - f(b) < 0이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g(x) > 0이다.

[해 설]

미분과 극한의 개념에 관한 문제이다. 다항함수의 변화에 관한 문제로 다항함수는 연속이며 무한번 미분가능한 함수이다. 또한 다항함수의 최고차항의 지수가 n이면 다항함수를 n+1번 미분하면 0이 된다. 일반적으로 유한인 닫힌 구간에서 다항함수는 최솟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배우지만 이 사실은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응용하는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본 문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한 구간에서의 최솟값 문제를 확장하여 실수 전체에서의 최솟값에 관한 것을 묻고 있으며, 이를 풀기 위하여 지문에서 유한 구간 밖에서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유한 구간에서의 최솟값과 지문에서 주어지는 최솟값을 연결하여 생각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이다.

[문항 2]

[예시답안]

문제1.

두 복소수를 각각 $z_1 = x_1 + iy_1$, $z_2 = x_2 + iy_2$ 라고 할 때 정의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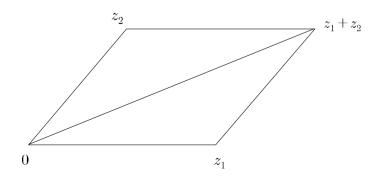
$$z_1z_2=(x_1x_2-y_1y_2)+i(x_1y_2+x_2y_1)$$
 이다.
$$z_1=0+i=i,\ z_2=0+i=i$$
라고하면,
$$z_1z_2=i^2$$

$$z_1 z_2 = (0-1) + i(0+0) = -1 + 0i = -1$$

그러므로 $i^2 = -1$ 임을 알 수 있다.

문제2.

예시답안 A. 덧셈의 정의로부터 다음처럼 평행 사변형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등식 $|z_1|+|z_2|=|z_1+z_2|$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z_1 과 z_2 는 일직선 상에 놓여야 할 것이다.



2012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28

예시답안 B. 두 복소수를 각각 $z_1 = x_1 + iy_1$, $z_2 = x_2 + iy_2$ 라고 할 때 양변을 각각 제곱하면

$$|z_1+z_2|^2 = (x_1+x_2)^2 + (y_1+y_2)^2 = x_1^2 + x_2^2 + 2x_1x_2 + y_1^2 + y_2^2 + 2y_1y_2 \tag{4.1}$$

$$(|z_1|+|z_2|)^2 = |z_1|^2 + |z_2|^2 + 2|z_1||z_2| = x_1^2 + y_1^2 + x_2^2 + y_2^2 + 2\sqrt{x_1^2 + y_1^2} \sqrt{x_2^2 + y_2^2} \tag{4.2}$$

이 된다

(식 1)과 (식 2)가 같기 위해서는 $x_1x_2+y_1y_2=\sqrt{x_1^2+y_1^2}\sqrt{x_2^2+y_2^2}$ 가 성립해야 된다. 양변을 각각 제곱하면

$$(x_1x_2 + y_1y_2)^2 = x_1^2x_2^2 + y_1^2y_2^2 + 2x_1x_2y_1y_2$$
 (4) 3)

$$(\sqrt{x_1^2 + y_1^2} \sqrt{x_2^2 + y_2^2})^2 = (x_1^2 + y_1^2)(x_2^2 + y_2^2) = x_1^2 x_2^2 + y_1^2 y_2^2 + x_1^2 y_2^2 + x_2^2 y_1^2$$
 (4)

(식 3)과 (식 4) 양 변이 같기 위해서는

$$2x_1x_2y_1y_2 = x_1^2y_2^2 + x_2^2y_1^2$$

가 성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begin{aligned} 2x_1x_2y_1y_2 &= x_1^2y_2^2 + x_2^2y_1^2\\ \Leftrightarrow x_1^2y_2^2 + x_2^2y_1^2 - 2x_1x_2y_1y_2 &= 0\\ \Leftrightarrow (x_1^2y_2^2 - x_2^2y_1^2)^2 &= 0\\ \Leftrightarrow x_1y_2 &= x_2y_1 \end{aligned}$$

 $x_1y_2 = x_2y_1$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1) 양변이 0인 경우와 2) 양변이 0이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의 경우, z_1 , z_2 둘 중 하나가 0 이거나, z_1 , z_2 의 실수부나 허수부가 동시에 0일 경우이다.
- 2) 의 경우.

$$x_1y_2 = x_2y_1$$

$$\Leftrightarrow \frac{y_2}{y_1} = \frac{x_2}{x_1}$$

이므로. $az_1 = z_2$ 를 만족하는 0이 아닌 실수 a 가 존재하면 된다.

문제3.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여 증명할 것이다. n이 0일 때, 당연히 성립한다. n이 1일 때,

 $z = \rho(\cos\phi + i\sin\phi)$ 는 정의에 의해 성립한다.

$$n$$
이 k 일때, $z^k = \rho^k(\cos k\phi + i\sin k\phi)$ 를 참이라고 가정하면

$$\begin{split} z^{k+1} &= z^k \bullet z \\ &= \rho^k (\cos k\phi + i \sin k\phi) \bullet \rho (\cos \phi + i \sin \phi) \\ &= (\rho^k \cos k\phi + \rho^k i \sin k\phi) (\rho \cos \phi + \rho i \sin \phi) \\ &= \frac{1}{2} \rho^{k+1} [\{\cos (k+1)\phi + \cos (k-1)\phi\} \\ &\quad + \{\cos (k+1)\phi - \cos (k-1)\phi\} \\ &\quad + i \{\sin (k+1)\phi + \sin (k-1)\phi\} \\ &\quad + i \{\sin (k+1)\phi - \sin (k-1)\phi\}] \\ &= \frac{1}{2} \rho^{k+1} \{2\cos (k+1)\phi + 2i \sin (k+1)\phi\} \\ &= \rho^{k+1} \{\cos (k+1)\phi + i \sin (k+1)\phi\} \end{split}$$

따라서 n이 k+1일 때 역시 성립한다.

n이 음의 정수인 경우. n이 -1이면

$$z^{-1} = \frac{1}{z}$$

$$= \frac{1}{\rho(\cos\phi + i\sin\phi)}$$

$$= \frac{1}{\rho}(\cos\phi - i\sin\phi)$$

$$= \frac{1}{\rho}\{\cos(-\phi) + i\sin(-\phi)\}$$

이므로 성립한다.

$$n$$
이 $-k$ 일 때, $z^{-k} = \rho^{-k} \{ \cos(-k\phi) + i \sin(-k\phi) \} = \rho^{-k} (\cos k\phi - i \sin k\phi)$ 를 참이라고 가정하면 $z^{-k-1} = z^{-k} \cdot z^{-1}$ $= \rho^{-k} (\cos k\phi - i \sin k\phi) \cdot \rho^{-1} (\cos \phi - i \sin \phi)$ $= (\rho^{-k} \cos k\phi - \rho^{-k} i \sin k\phi) (\rho^{-1} \cos \phi - \rho^{-1} i \sin \phi)$ $= \frac{1}{2} \rho^{-k-1} [\{ \cos(k+1)\phi + \cos(k-1)\phi \}$ $+ \{ \cos(k+1)\phi - \cos(k-1)\phi \}$ $-i \{ (\sin(k+1)\phi + \sin(k-1)\phi \} \}$ $-i \{ (\sin(k+1)\phi - \sin(k-1)\phi \} \}$ $= \frac{1}{2} \rho^{-k-1} \{ 2\cos(k+1)\phi - 2i \sin(k+1)\phi \}$ $= \rho^{-k-1} \{ \cos(-k-1)\phi + i \sin(-k-1)\ph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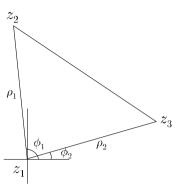
이므로 n=-k-1 인 경우에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

2012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30

문제4.

주어진 복소수는 주어진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frac{z_1-z_2}{z_1-z_3}=
ho(\cos\phi+i\sin\phi)$ 가 된다. 그리고 좌표축을 평행하게 이동시켜도 좌표에 의하여 생성되는 각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그림과 같이 x축과 y축을 이동한 좌표를 생각하면, $z_1=0$ 이고,

$$\frac{z_1 - z_2}{z_1 - z_3} = \rho'(\cos\phi + i\sin\phi)$$

$$\frac{z_1 - z_2}{z_1 - z_3} = \frac{z_2 - z_1}{z_3 - z_1} = \frac{z_2 - 0}{z_3 - 0} = \frac{z_2}{z_3}$$

이다. 이동한 좌표축에서 z_2 , z_3 를 정의에 따라 살펴보면

$$\begin{split} z_2 &= \rho_1 (\cos \phi_1 + i \sin \phi_1), \quad z_3 = \rho_2 (\cos \phi_2 + i \sin \phi_2) \text{ ord}, \\ \frac{z_2}{z_3} &= \frac{\rho_1 (\cos \phi_1 + i \sin \phi_1)}{\rho_2 (\cos \phi_2 + i \sin \phi_2)} \\ &= \frac{\rho_1 (\cos \phi_1 + i \sin \phi_1) (\cos \phi_2 - i \sin \phi_2)}{\rho_2 (\cos \phi_2 + i \sin \phi_2) (\cos \phi_2 - i \sin \phi_2)} \\ &= \frac{\rho_1}{\rho_2} \{ (\cos \phi_1 \cos \phi_2 + \sin \phi_1 \sin \phi_2) + i (\sin \phi_1 \cos \phi_2 - \cos \phi_1 \sin \phi_2) \} \\ &= \frac{1}{2} \frac{\rho_1}{\rho_2} [\cos (\phi_1 + \phi_2) + \cos (\phi_1 - \phi_2) - \cos (\phi_1 + \phi_2) - \cos (\phi_1 - \phi_2) \\ &\quad + i \sin (\phi_1 + \phi_2) + \sin (\phi_1 - \phi_2) - \sin (\phi_1 + \phi_2) - \sin (\phi_1 - \phi_2)] \\ &= \frac{\rho_1}{\rho_2} \cos (\phi_1 - \phi_2) + i \sin (\phi_1 - \phi_2) \end{spl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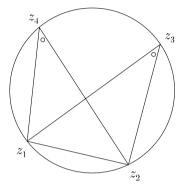
따라서 주어진 복소수의 각 ϕ 는 다음과 같고.

$$\phi = \phi_1 - \phi_2$$

이것은 $\angle z_2 z_1 z_3$ 이다.

문제5.

두 복소수 $(z_3-z_1)/(z_3-z_2)$ 과 $(z_4-z_1)/(z_4-z_2)$ 의 각은 선분 $\overline{z_1z_2}$ 를 기준으로 각각 z_3 와 z_4 를 꼭짓점으로 갖는 각이다. 두 복소수 $(z_3-z_1)/(z_3-z_2)$ 과 $(z_4-z_1)/(z_4-z_2)$ 의 각이 같으므로 원의 성질에 의하여 선분 $\overline{z_1z_2}$ 를 현으로 갖는 사각형 $\Box z_1z_2z_3z_4$ 의 외접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네 복소수들은 한 원 위에 있다. 그 역도 한 원 위의 같은 현 $\overline{z_1z_2}$ 에 대한 두 원주각 $(z_3-z_1)/(z_3-z_2)$ 과 $(z_4-z_1)/(z_4-z_2)$ 의 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므로 성립한다.



[해 설]

이 문제는 복소수를 통하여 대수적 연산 이해도와 동시에 평면 상의 각 점을 복소수로 이해하여 기하적인 해석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문항들은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있으며,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하면 다소 쉽게 문 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교과 지식은 삼각함수의 성질들, 원과 관련된 평면기하 그리고 대수적 연산의 활용도 등이다.

2012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32

Essay 안내(알바트로스 인재전형 - 인문사회계열)

V. Essay란 무엇인가?

의미 및 구성



1. 목표

- 대학교육의 핵심이 되는 교양과목에서 필요한 영어독해 및 쓰기 능력을 갖추었는지 측정한다.
- 각 전공분야의 영어 Text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갖추었는지 측정한다.
- 각 전공분야에서 필요한 논리력을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갖추었는지 측정한다.
- 교양 및 전공지식을 갖추어 현실세계의 문제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할만한 기초소양을 갖추었는지 측정한다.
- 전공과 교양지식을 영어쓰기의 형태로 적절히 소통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있는지 측정한다.

2. 교육적 의미

- 국제화 시대에 부흥하여 대학생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학문적 과업을 수행하는 실증적 능력을 갖추기에 필요로 하는 영어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 영어 Essay가 단순히 영어능력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유용한 교육수단이라는 방법론적 인 측면을 강조한다.
-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지식인에게 필요로 하는 전문적 영어소통능력의 중요성을 전파하여 일상생활에서 읽기와 쓰기 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영어 Essay의 구성

- : 서강대의 영어 Essay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 A. 비교분석 Essay : 비교적 긴 Text를 근거로 비교분석하는 Essay
- B. 자유 Essay : 짧은 Prompt를 기초로 좀더 유연한 형태의 Essay

구분	문항 1	문항 2
배점	60%	40%
시간	1시간 30분	

1) 비교분석 Essay

• 구성

비교 분석 Essay는 대학수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Text Reading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논리를 전개할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포맷이다. 이 형태는 150~300단어로 이루어진 지문 2~3개를 이용하는 문제의 형태이다.

• 지문의 특징

비교분석 Essay의 특징은 여러 지문을 주고 이를 비교 분석하게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학문적인 지문 2개를 제시하고, 일 상적인 예를 통해 논지를 끌어내도록 할 수도 있고, 일상적인 지문 2개를 제시하고 학문적인 지문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형태도 나타낼 수 있다.

• 비교분석의 평가기준

- (1) 주어진 지문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2) 주어진 지문을 근거로 하여 얼마나 깊은 논리적인 글로 이끌어 냈는가?
- (3) 논리에 적절한 증거나 예를 제공하였는가?
- (4) 논지를 설득력있고 정확한 영어로 이끌어냈는가?

2) 자유 Essay

구성

자유Essay는 논리전개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보고자 한다. 이 Essay는 비교적 짧은 구문이나 Quotation을 주고 논지를 전개하는 형식을 띤다.

• 자유 Essay의 평가기준

- (1) 주어진 질문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 (2) 얼마나 논리적인 글을 이끌어 냈는가?
- (3) 논리에 적절한 증거나 예를 제공하였는가?
- (4) 논지를 설득력있고 정확한 영어로 이끌어냈는가?

2012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34

VI. 모의 Essay로 실전에 대비해 보자.

2012학년도 모의 Essay 문제 및 해설



1. 모의 Essay 문제

[문항 1]

Read the two passages and answer the question below.

Question(60% 배점)

Most Korean universities adopt an admission policy that a certain quota of freshmen should be comprised of high school graduates from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These students are subjects to a different set of admission requirements from the rest of the applicants in the entrance examination.

Write an essay in which you summarize each position presented in the two passages and explain which one of the two passages better reflect the admission policy described in the question.

Passage 1 _

Assimilationism celebrates personal achievement and self-reliance. This message places individual identity over and above group identity and questions the validity and morality of categorical thought. Although each person is unique, all humans are also endowed with the same set of universal human need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Prejudice directed for or against individuals simply based on group membership is morally wrong, not only because it is irrational but also because its focus on social categories contradicts the intellectual or moral prescriptions to value the unique qualities of every individual. The primacy of the individual over the group hinges on the value of equality and thus calls for equal applications of laws

and rules to all people regardless of their group categories. A fair society is one in which all individuals, regardless of their backgrounds, are granted equal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This view accepts and appreciates differential individual merits in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status.



Pluralism is the idea of the sanctity of the group. This notion is traceable to the experiences of unequal treatment of certain individual for their characteristics. Pluralist messages uphold group identity as a vital, if not primary, construct of a personhood, highlighting a fact of life that we are different types of persons defined by social categories, such as race, ethnicity, language, culture, and national origin. Their messages are based on the persistent reality in which individual are discriminated because of their group characteristics. This sense of systematic mistreatment has given way to a new demand for a new politics or resentment and victimization. Instead of defining equality in terms of fairness of rules, pluralist messages advocate the contrary belief in status equality, a demand for equal results in the interest of emancipation of specific groups of historically oppressed or presentably in need of institutional support through remedial laws and public policies.

Kim, Young-Yun, (2009). Unum and Pluribus: Ideological underpinnings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edited by Samovar, L, Porter, R., & McDaniel, E. (pp. 185-196). Wadsworth.(p. 186-189)

[문항 2]

Question(40% 배점)

Consider the following definition of dialect by Merriam-Webster dictionary:

a regional variety of language distinguished by features of vocabulary, grammar, and pronunciation from other regional varieties and constituting together with them a single language

Explain how this linguistic definition fares with a non-linguistic perspective offered by the Yiddish linguist Max Weinreich, "A language is a dialect with an army and a navy."

2012 논숲&에세이 가이드북 36

2. 예시답안 및 해설

[문항 1]

[예시답안]

The above two views offer opposite stance towards equality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the society. Assimilationism emphasizes equality based on each individual's ability and achievement whereas pluralism pays attention to group differences in one society. The focus on group differences seems to be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not all people in a society are given equal opportunities and resources and therefore, there should be institutional supports to bridge the gap. In contrast, assimilationist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fair treatment of each individual regardless of their group affiliation.

The policy that gives some preferential treatments to those applicants from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certainly reflects the pluralism in Passage 2. To my understanding, pluralism is designed to provide opportunities to those who are economically disadvantaged. This view considers that in society, people's economic and/or social status is not equal, and that such inequality is not because of their own doing, but because of the conditions which they do not have any control over. The disadvantageous status is often historically and culturally based and therefore, this type of policy tries to correct the situation by providing these groups with financial and political resources. I think the above policy reflects that philosophy.

The admission policy mentioned in the question seems to go against the position by assimilationists described in Passage 1. Assimilationism focuses on guaranteeing equal opportunity and merit-based system. This view therefore would not support the differential treatment given to high school graduates because of their backgrounds because this implies unequal application of rules. In order to realize the view of assimilationism, Korean universities should apply the same policy to all applicants.

The admission policy therefore subscribes the view of pluralism because it acknowledges the unequal status this particular group of students is positioned in. I think the reason why this policy is adopted is that these universities (or the government that enforces this policy) recognize that in Korea,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resources are not equally available to all high school students. People from affluent families or from the metropolitan Seoul area often have better access to resources and information, which place them at a more advantageous position in comparison to other groups who are from less privileged areas. People from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may not have educational and financial supports that could match those candidates from Seoul areas for example. This policy, I

think, is designed to correct any inequalities prevalent in the Korean society in order to prevent college education from polarizing our society between the rich and poor because education could become the monopoly of the upper classes.

While I agree with the above admission policy for its ability to close the gap between different social classes, I also want to note that extreme forms of pluralism should be carefully guarded. This is because the overt emphasis on the group difference might compromise the principles of free competition and fairness that have made phenomenal economic success possible in Korea.

[해 설]

위 문제에 대한 이상적인 답안에서는 지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두 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논리를 제시하여 야 한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대답은 Pluralism의 어떤 원칙이 College admission의 정책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술하고, 수험자 개인의 특수 상황보다는 한 사회를 이루는 여러 Group의 특징과 그들이 처해있는 특징까지 고려하는 전반적 입장에서 논리를 펴야한다.

Pluralism에 관한 답을 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Assimilationism의 어떤 부분 장점과 상충하는지를 끌어내고, 왜 이러 한 정책이 필요한지에 관한 당위성을 끌어내도록 한다. 단순히 "가난하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적어서"라는 개인적, 단 편적인 논의 보다는 좀더 거시적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좋은 답안이다.

[문항 2]

[예시답안]

The definition offered by Merriam-Webster probably represents what most people think of when they need to distinguish a dialect from a language. Most people think that for two different "languages" to be considered dialects of the same language, the speakers of those two "languages" have to be able to understand each other. For instance, a speaker of the Busan dialect can mostly understand a speaker of the Kwangju dialect, and vice versa. Therefore, both the Busan dialect and the Kwangju dialect are considered two dialects of the same Korean language. Likewise, someone from Boston has no problem communicating with another person from San Francisco, although the minute they start talking to each other they'll soon notic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anguages, i.e. dialects, that they are using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However, there are cases when one must resort to an alternative definition. In speaking of Weinreich emphasize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language and dialect cannot always be attributed to linguistic factors and that sometimes it can only be attributed to political factors. For example, if you are a speaker

2012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38

of Mandarin, a northern Chinese dialect, you will not be to understand someone who speaks Cantonese, a southern Chinese dialect, even though both Mandarin and Cantonese are considered dialects of the same Chinese language. In fact, it is said that Cantonese is just as different from Mandarin as Korean is different from Japanese. The only reason Cantonese and Mandarin are considered dialects of the same language is that they both are used by people living in the same country called China. In other words, Korean and Japanese are not considered dialects of Chinese because they are spoken by those living in different sovereign nations with "an army and a navy."

While Weinreich's quote seems to be a good alternative the linguistic definition offered by Merriam-Webster, it is not without problems. For example, there are some countries that share "dialects" of the same language. For example, we might consider British and/or American English to belong this dialect category and yet, we do not consider them to be the same country. It seems to me then that relying on any one category, be it linguistic or political, might not reflect the realities of language use in the world.

[해 설]

이 문제는 '언어와 방언의 차이점 및 관계'라는 주제를 언어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도록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이상적인 답안에서는 Max Weinreich의 인용문에서 "an army and a navy"는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 가를 뜻한다는 것을 기술한 뒤 중국어 등의 적절한 예를 들어 같은 나라의 방언으로 분류되는 언어들 사이에도 한국어의 방언들과는 달리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야 한다. 한층 더 나아가 미국영어와 영국영어는 다른 두 국가에서 사용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같은 언어 '영어'로 분류된다는 예를 들어 '언어'라는 개념을 사회정치학적으로 접근한 Weinreich의 인용문도 모든 언어의 실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2012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부록 Appendix

1. 서강대 논술 이것이 궁금하다!

작년도 입시결과 분석에 기초한 Q&A

2. 논술 달인을 위한 10계명

1. 서강대 논술 이것이 궁금하다!

작년도 입시결과 분석에 기초한 Q&A



Q. 서강대학교 수시2차 일반전형에서 논술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A. 수시2차 일반전형에서 반영요소는 수능우선선발과 일반선발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능우선선발은 논술 70%, 학생부 30%가 반영되고, 일반선발은 논술 50%, 학생부 50%가 반영됩니다. 일반전형은 논술의 실질 반영비율이 높으므로 논술성적에 의해 합격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Q. 내신이 좋지 않으면 합격가능성이 없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강대학교 전형의 특징은 각 전형별 주요 평가요소가 실제 합격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내신성적이 좋지 않아도 논술실력으로 극복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작년도 일반전형 기준으로 내신성적을 분석해 보면, 합격생의 내신 등급은 평균적으로 2.5∼3등급 사이에 분포해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생 중 약 20%는 내신 등급이 4∼5등급에 위치한 학생임이 밝혀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내신의 불리함을 논술실력으로 이겨내어 서강대에 당당히 입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 합격생들의 논술성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4. 논술채점은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기게 됩니다. 작년도 전체지원자의 평균성적은 3~4점 사이에 위치하는데 반해 합격생들의 논술성적은 6.5점 이상에 위치합니다. 다만, 한 문제라도 0점을 받으면 자동으로 과락처리되므로 불필요한 낙서나 이모티콘을 답안지에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DI2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SOGANG UNIVERSITY

Q.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유리하나요?

A.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오류가 모범답안을 암기해서 논술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교수님들의 논술평가시 본격적인 채점에 앞서 우선 40~50명의 수험생에 대한 가채점을 통해 문제의 난이도 및 수험생의 답안유형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 때 학원에서 배운 판박이 답안유형이 쉽게 눈에 띄게 되고 이 학생들에게는 평균이하의 성적을 주게 됩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답안에는 의외로 중소도시의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은 논술실력이 사교육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Q. 지원하려면 반드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논술 및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모집단위별 상위 20%의 학생은 수능성적과 무관하게 선 발하였으나 금년도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학력기준은 인문사회계열은 2등급 3개, 자연계열은 2등급 2개입니다. 다만 수능최저학력기준 판정시 2011학년도에는 탐구영역 2등급 기준이 2개영역 각각 2등급이었으나 올해는 평균 2등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예년에 비해 최저학력기준이 하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작년도 지원인원 및 실질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A. 작년도 수시2차 일반전형은 413명 모집에 30,229명이 지원하여 평균 73: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서접수 이후 사정이 있어서 응시를 못하거나 중도포기하는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입시결과를 분석해보면 결시자 및 최저학력기준 미달자가 전체지원자 중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경쟁률은 애초 경쟁률의 1/3 이하인 약 20:1 줄어듭니다.

2012 논술&에세이 가이드북 42

2. 논술 달인을 위한 10계명



 1
 논제와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

 2
 정확히 읽고 효율적으로 요약한다.

 3
 제시문의 논리적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다.

 (제시문을 그렇게 구성하고 배치한 출제자의 의도가 있다.)

 4
 논제 해결에 필요한 논거를 우선 제시문에서 적절히 파악하고, 자신의 평소 지식과 정보 및 경험에서 축적한 논거들과 효율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발견적 사유를 추론한다.

 5
 자신의 논지와 주장이 합당한 논거에 근거하고 있는지, 반론에 취약하지 않은지 반성한다.

 6
 핵심 아이디어와 키워드를 정리한다.

 7
 효율적인 개요를 작성한다.

 (가능하면 적정 분량까지 잘 계산한다.)

 B
 제시문서 그래프나 도제를 먼저 읽는다.(문제를 읽고 난후 문제해결을 위한 제시문을 찾는다.)

 9
 제시문에 그래프나 도표가 나온 경우 철저히 이해한다.

글(단락, 문장)의 구성력(통일성, 일관성, 완결성)을 제고하고 어문규정 및 분량을 준수한다.